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우리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소서**

- 시편 119:133 -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13주 】
(2부 찬양: 273.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김재홍 목사
-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내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람들이 속에 감춰두었던 거친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한 가족이 그리고 하나의 나라가 자신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태로운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선택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과 평화의 길에서 등을 돌린 채,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한 일에만 앞장섰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를 흉내만 내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과 주님이 소중히 여긴 이웃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고후 12:9 인도자
- ▲ 교 독 문 81. 엡 4장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박범희 장로
- 2부 응 답 송 반주자
- 2부 찬 양 84.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다 함께
- ▲ 성경봉독 막 9:21~29 1부:인도자/2부:이용석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찬 양	I. 항상 진실케	마중물 찬양대
	II. 시편 23편	청과 찬양대
말 씬	서로의 곁이 되어	김재홍 목사
거듭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212.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재홍 목사
공동체 소식		김재홍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p>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의 도움과 누군가의 기도 덕에 내가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내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숨 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사십시오. 나의 곁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사십시오.</p> <p>다 함 께 : 아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내 곁에 누군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곁을 내어주겠습니다. 이웃의 설 땅이 되어주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생명과 평화의 물결이 흐르도록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p>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재홍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홍석민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홍석민	김영호	김승현	김재홍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파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